

##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 승 희  
(서울시립대학교)

본 연구는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데이터(2011)를 이용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식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 매개효과 검증이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종속변수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가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와 장애수용을 모두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후,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매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1단계와 2단계 분석 결과,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취업 확률은 낮아지고,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장애수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장애수용은 취업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장애수용 투입 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수용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일수록 장애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의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용어: 장애인, 장애 발생 시기, 장애수용, 취업, 매개효과

■ 투고일: 2016.7.20    ■ 수정일: 2016.9.26    ■ 게재확정일: 2016.9.27

## I. 서론

도시화, 정보화로 인간의 삶은 부유하고 편리해졌지만, 그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 약물남용, 난치성 질환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는 장애발생 위험요인을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장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간우선, 조성재, 조주현,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 인구는 2000년에 약144만 명이던 것이 2011년에는 268만 명, 2014년에는 27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동일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장애 발생 원인은 88.9%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천적 원인 중 질환(56.2%)이 사고(32.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연령 분포는 만 65세 이상이 43.3%로 가장 높았고, 50~64세가 30.7%로 다음으로 높았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실태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의 대부분은 질환이나 사고, 고령으로 인한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후천적인 장애는 장애 발생 시기가 다양하며, 다양한 장애 발생 시기는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애 발생 시기는 장애인이 장애를 받아들이고 장애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선천성 장애인은 어릴 때부터 장애를 자신의 신체적 조건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반면, 후천성 장애인은 중도의 장애 발생으로 인해 선천성 장애인과는 다른 심리적 충격을 수반하게 된다(김성희, 2000). 후천성 장애인은 갑작스런 신체 기능 상실로 인해 장애 이전에 수행하던 역할에 변화를 겪게 되며, 장애를 입기 전의 상태와 장애를 입은 후의 상태를 비교하게 되어 상실감에 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수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장애수용은 개인이 장애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다른 능력에 가치를 두며, 손상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Wright, 1983).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수용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에 대한 극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진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에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하므로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송진영, 2012). 장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이러한 장애수

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장애 발생 시기가 이룰수록 장애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간우선 등, 2012; Krause & Crew, 1991; Woodrich & Patterson, 1983). 이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상황을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아의 이미지가 강하며 그들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이 더 많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Woodrich & Patterson, 1983).

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 중에서도 취업은 장애인의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오소운, 나운환, 박세진, 2014). 하지만 장애인의 취업확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조민수, 이상원, 2011). 2014년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로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62.4%에 비해 23.4%p 낮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비장애인의 실업률 3.5%에 비해 2.8%p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이와 같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높은 실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놓여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들로 노동 수요의 측면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기업의 확대, 고용부담금 부과 등이 있으며, 노동 공급의 측면에서는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과 같은 직업재활시설의 확대 등이 있다(이준상, 2008).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정도, 장애 발생 원인과 발생 시점과 같은 장애 관련 요인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 관련 요인들은 장애인의 취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은경, 2008; 이준상, 2008; 조민수, 이상원, 2011).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특히 노동 공급 측면의 직업재활 관련 정책들을 시행할 때에는 장애 관련 요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취업결정 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장애인의 취업결정 요인을 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장애 관련 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류정진, 나운환, 2006; 신은경, 2008; 오세란, 2008).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소득 등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 관련 요인으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중복 장애 여부,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의 취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희, 2010; 오세란, 2008; 조민수, 이상원, 2011).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

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장애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신체 기능의 상실, 인지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 직무수행의 어려움, 자존감 상실 등의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간우선 등, 2012).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은 처음에는 장애로 인해 충격과 우울감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장애에 대한 재평가와 재확인을 거쳐 극복 가능한 것을 파악하고 대처해 가면서 장애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Turtle & Turtle, 1984). 장애수용도가 높은 장애인일수록 취업욕구가 높고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희영, 조성재, 2009; 박수경, 1999; 박수경, 안치민, 2006; Asbury, Walker, Maholmes, Green, Belgrave,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장애수용이라는 심리적 변수를 통해 어떻게 매개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장애인의 장애 관련 특성과 심리적 측면이 보다 면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장애 발생 시기가 성인기의 취업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취업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조민수, 이상원, 2011; Finch & Mona, 2003). Finch와 Robinson(2003)은 장애발생시기가 늦은 장애인들은 취업, 인간관계, 경제적 독립과 같이 장애 발생 이전에 가능했던 삶의 많은 측면들이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며, 장애와 노화에 같이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사람들은 장애 발생 시기가 이른 사람들에 비해 장애 이후의 직업 훈련이나 직무능력 평가에 덜 순응적이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장애 발생 후 재취업할 때 장애 발생 이전에 받았던 보수와 근로조건 보다 열악한 직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된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근로의

욕을 떨어뜨리며, 때론 취업 자체를 거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는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은 장애발생시기가 이른 장애인에 비해 장애에 대한 적응과 수용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취업에 있어서 이른 시기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에 비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장애발생 시기가 이룰수록 인적자본 형성에 방해가 되어 교육적 성취 가 낮고 이로 인해 성인기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신승봉, 나운환, 정지훈, 2007; Currie, 2009; Davies, Rupp & Wittenburg, 2009; Smith, 2009). 신승봉 등(2007)은 청각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육구 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어려서 청각을 잃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게 되므로 정상인과는 다른 집단문화를 형성하게 되어 언어적 단절 이외에 문화적 단절까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청각장애 발생 시기가 이룰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청각장애 발생 시기가 이룰수록 교육, 직업 등에서 소외 받은 청각장애인들이 노후에도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Currie(2009)는 어린 시절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는 미래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 고 이것은 다시 노동공급과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는 Case, Fertig, Paxson(2005)의 연구를 인용하여 어린 시절에 만성질환을 겪은 성인들은 실제로 더 좋지 않은 노동시장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장애 발생 시기는 장애수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 발생 시기가 이룰수록 장애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간우선 등, 2012; 김성희, 2000; Woodrich & Patterson, 1983). 선천성 장애인은 장애를 자신의 신체적 조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반면, 후천성 장애인은 선천성 장애인에 비해 장애 발생 원인으로서 개인의 책임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은 장애수용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김성희, 2000). 또한 Woodrich와 Patterson(1983)에 따르면,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환경에 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적응하기 때문에 장애수용이 더 용이할 수 있는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아상과 자신이 수행하던 사회적 역할이 더 강하게 남아있어서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장애수용은 취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Asbury(1994)의 연구에서는 장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취업욕구가 높게 나타났 으며, 김희영과 조성재(2009)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장애를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들이며 장애의 영향을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산시키지 않는 산재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은 산재장애인들에 비해 고용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근로자의 원직 복귀 예측 요인을 분석한 박수경과 안치민(2006)의 연구에서는 장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집단일수록 원래 직장으로의 복귀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취업욕구가 촉진될 수 있으며, 장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며 환경의 방해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고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신은경, 2008).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장애 발생 시기는 장애수용을 매개로 하여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 가설1.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장애인의 취업 확률이 낮을 것이다.
- 가설2.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낮을 것이다
- 가설3. 장애수용이 낮을수록 취업 확률이 낮을 것이다.
- 가설4.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는 장애수용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데이터와 조사대상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edi.kead.or.kr)에서 2011년에 실시한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데이터를 사용한다. 현재 장애인고용패널조사가 7차(2014년)까지 데이터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4차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장애수용 변수가 3차와 4차 데이터에서만 조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패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고용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자료이다(양수정, 최종철, 류정진, 김호진, 2012). 따라서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는 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장애관련, 경제활동 상

태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1차 조사(2008년)에서는 총 5,092명의 등록 장애인이 패널로 확정되어 조사되었으나,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패널의 불가피한 이탈로 인해 2011년에는 4,397명의 패널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경제활동 인구의 연령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의 연령을 만18세 이상부터 만65세 이하로 제한하며, 대상 장애인 중 결측치(missing values)를 제외한 3,89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수용을 매개로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변수 및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취업여부로 미취업(=0)과 취업(=1)으로 나타내지며, 미취업은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포함한다. 독립변수는 장애 발생 연령으로 주장애가 발생한 만 나이로 표시된다.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은 장애인식과 극복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된다(송진영, 2012). 12문항 중 1, 3, 7번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이 높은 것으로 본다. 1, 3, 7번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수용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므로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장애수용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 0.86으로 나타났다. 12문항의 점수를 평균한 값을 장애수용 변수값으로 한다.

통제변수는 성별(여성=0, 남성=1), 연령(현재 만 나이), 교육 수준(최종학력: 초졸 이하=1, 중졸=2, 고졸=3, 대졸 이상=4),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1, 감각장애=2, 정신장애=3, 신체내부장애=4), 장애등급(경증=0, 중증=1), 현재 건강상태(나쁨=0, 좋음=1),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아니오=0, 예=1), 만성질환 보유 여부(아니오=0, 예=1), 일상생활 차별 경험 여부(없음=1, 조금 있음=2, 많음/매우 많음=3),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여부(아니오=0, 예=1)이다. 여기서 교육 수준, 장애유형, 일상생활 차별 경험 여부 변수는 다시 터미변수로 조작되었다.

### 3. 분석방법

장애 발생 시기와 취업 간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이론을 따른다. Baron과 Kenny(1996)는 어떤 변수가 매개변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회귀방정식에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매개변수가 회귀방정식에 투입되기 전에 나타났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매개변수가 투입된 후에 줄어들거나 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매개변수 투입 후 0이 될 때, 즉, 유의미한 관계가 사라질 때, 그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완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매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독립변수의 추정된 계수(coefficient)의 절대적 크기(absolute size)가 줄어들었다면, 매개변수로 투입된 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첫째,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회귀방정식, 둘째, 독립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회귀방정식,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회귀방정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발생 시점과 취업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방식을 따라,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둘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회귀방정식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발생 시기와 장애수용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식에 모두 투입한 후,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다. 통계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되는 통계프로그램은 STATA 13이다.

## IV.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이하가 13%, 40대 23%, 50대 42%, 6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가 23%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51세(표준편차 9.9)로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50대 이상에 집중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에 발생 연령은 19세 이하가 38%, 20대 13%, 30대 16%, 40대 20%, 50세 이상이 13%였으며, 주장에 발생 연령의 평균은 27세(표준편차 18.6)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63%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39%, 중학교 20%, 고등학교 32%, 대학 이상이 8%로 나타나 59%의 장애인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 여부는 취업자가 43%로 나타났다. 장애수용 정도는 평균값이 2.8(표준편차: 0.6)로 나타나 5점 척도에서 중간을 약간 넘는 정도의 수용도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 61%, 감각장애 24%, 정신장애 8%, 신체내부장애 7%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중증장애가 44%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40%로 나타났고, 만성질병은 55%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여부는 33%가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차별 경험은 없음이 40%, 조금 있음이 42%, 많음이나 매우 많음이 18%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사를 분산팽창계수(VIF)를 통해 확인할 결과, 모든 변수들이 5이하의 VIF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899)

분류	항목	백분율 (%)
연령 (평균: 51세, 표준편차: 9.9)	18~39세	13
	40~49세	23
	50~59세	42
	60~65세	23
주장애 발생연령 (평균: 27세, 표준편차: 18.6)	19세 이하	38
	20~29세	13
	30~39세	16
	40~49세	20
	50세 이상	13
성별	남자	63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39
	중학교	20
	고등학교	32
	대학 이상	8
취업 여부	취업	43
장애수용 정도 (평균: 2.8, 표준편차: 0.6)	5점 리커트 척도	-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	61
	감각장애	24
	정신장애	8
	신체내부장애	7
장애정도	중증 장애	44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필요	40
만성질병 보유 여부	보유	55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여부	수급	33
일상생활 차별 여부	없음	40
	조금 있음	42
	많음/매우 많음	18
총 조사대상자(명)	3,899	

## 2.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 가. 1단계: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행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McFadden's Pseudo  $R^2$ 는 0.29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29% 설명하고 있으며, Likelihood Ratio(LR)  $\chi^2(15) = 1528.51$  ( $p = 0.000$ )로 본 회귀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장애발생연령은 종속변수인 취업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016$ ,  $p = 0.000$ ). 장애 발생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낮아 지므로 가설1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S. E.	OR
장애 발생 연령		-0.016***	0.003	0.984
성별(기준: 여)		1.157***	0.088	3.182
연령		-0.008	0.006	0.992
교육 수준	중학교	-0.147	0.112	0.863
(기준: 초등학교 이하)	고등학교	-0.186*	0.106	0.831
	대학교 이상	0.181	0.166	1.198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	0.476***	0.176	1.609
(기준: 신체내부장애)	감각장애	0.835***	0.190	2.306
	정신장애	-0.038	0.246	0.962
장애정도(기준: 경증)		-0.611***	0.096	0.543
일상생활 도움 필요(기준: 도움 필요 없음)		-0.962***	0.094	0.382
만성질병(기준: 만성질병 없음)		-0.553***	0.086	0.575
일상생활 차별 경험	조금 있음	-0.569***	0.090	0.566
(기준: 경험 없음)	많음/매우 많음	-1.135***	0.139	0.321
_cons (절편)		1.136***	0.343	3.114
N				3899
LR $\chi^2(15)$				1528.51
Prob > $\chi^2$				0.000
Pseudo $R^2$				0.2868

주: \*\*\* $p < 0.01$ , \*\* $p < 0.05$ , \* $p < 0.1$

## 나. 2단계: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이 실행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R^2$ 는 0.34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34% 설명하고 있으며,  $F(15, 3883) = 133.89$  ( $p = 0.000$ )로 분회귀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장애 발생 연령은 종속변수 장애수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beta = -0.003$ ,  $p = 0.000$ )으로 나타났다. 장애 발생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수용이 낮아지므로 가설2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S. E.
장애 발생 연령		-0.003***	0.000
성별(기준: 여)		-0.010	0.016
연령		0.005***	0.001
교육 수준 (기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0.066***	0.021
	고등학교	0.147***	0.020
	대학교 이상	0.270***	0.032
장애유형 (기준: 신체내부장애)	신체외부장애	0.051	0.032
	감각장애	0.015	0.035
	정신장애	0.001	0.042
장애정도(기준: 경증)		-0.090***	0.019
일상생활 도움 필요(기준: 도움 필요 없음)		-0.235***	0.019
만성질병(기준: 만성질병 없음)		-0.118***	0.017
일상생활 차별 경험 (기준: 경험 없음)	조금 있음	-0.288***	0.018
	많음/매우 많음	-0.532***	0.025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여부 (기준: 비수급)	수급	-0.114***	0.018
_cons (절편)		2.955***	0.064
N			3899
F(15, 3883)			133.89
Prob > F			0.000
$R^2$			0.3409

주: \*\*\* $p < 0.01$ , \*\* $p < 0.05$ , \* $p < 0.1$

### 다. 3단계: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수용을 통해 취업에 미치는 매개효과 분석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장애 발생 연령과 장애수용이 회귀방정식에 동시에 투입된 후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실행되었으며,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McFadden's Pseudo  $R^2$ 는 0.30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30% 설명하고 있으며, LR  $\chi^2(16) = 1582.06$  ( $p = 0.000$ )로 본 회귀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 장애수용은 취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eta = 0.630$ ,  $p = 0.000$ ),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취업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애 발생 연령은 장애수용 변수가 투입된 후에도 취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beta = -0.014$ ,  $p = 0.000$ ), 효과의 크기가 1단계에서 나타났던  $\beta = -0.016$ 에서  $\beta = -0.014$ 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매개변인의 검정량이 유의수준 0.01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 발생 연령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장애수용에 의해 부분 매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가설3과 가설4가 지지되었다.

장애 발생 연령과 장애수용 이외에도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장애 관련 변수들이 유의하게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beta = 1.180$ ,  $p = 0.000$ ),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beta = -0.011$ ,  $p = 0.045$ ).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중학교( $\beta = -0.196$ ,  $p = 0.082$ ), 고등학교( $\beta = -0.295$ ,  $p = 0.006$ )가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신체내부장애에 비해 신체외부장애( $\beta = 0.446$ ,  $p = 0.012$ )와 감각장애( $\beta = 0.832$ ,  $p = 0.000$ )가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중증일수록( $\beta = -0.558$ ,  $p = 0.000$ ),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할수록( $\beta = -0.825$ ,  $p = 0.000$ ),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beta = -0.490$ ,  $p = 0.000$ ) 취업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차별 경험은 차별 경험이 없음에 비해 조금 있거나( $\beta = -0.400$ ,  $p = 0.000$ ) 많음/매우 많은 경우에( $\beta = -0.826$ ,  $p = 0.000$ ) 취업 확률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비수급 가구에 비해 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beta = -1.590$ ,  $p = 0.000$ ).

표 4.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통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S.E.	OR
장애 발생 연령		-0.014***	0.003	0.986
장애수용		0.630***	0.087	1.878
성별(기준: 여)		1.180***	0.088	3.255
연령		-0.011**	0.006	0.989
교육 수준 (기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0.196*	0.113	0.822
	고등학교	-0.295***	0.108	0.745
	대학교 이상	0.007	0.169	1.007
장애유형 (기준: 신체내부장애)	신체의부장애	0.446**	0.178	1.562
	감각장애	0.832***	0.192	2.297
	정신장애	-0.051	0.248	0.950
장애정도(기준: 경증)		-0.558***	0.097	0.573
일상생활 도움 필요(기준: 도움 필요 없음)		-0.825***	0.096	0.438
만성질병(기준: 만성질병 없음)		-0.490***	0.087	0.612
일상생활 차별 경험 (기준: 경험 없음)	조금 있음	-0.400***	0.093	0.670
	많음/매우 많음	-0.826***	0.146	0.438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여부 (기준: 비수급)	수급	-1.590***	0.102	0.204
_cons (절편)		-0.687	0.426	0.503
N				3899
LR $\chi^2(16)$				1582.06
Prob > $\chi^2$				0.000
Pseudo R <sup>2</sup>				0.2969

주: \*\*\*p < 0.01, \*\*p < 0.05, \*p < 0.1

표 5. Sobel test 검증 결과

Type of Test	Test statistic	Std. Error	p-value
Sobel test	-4.49641316	0.00040011	0.00000691
Aroian test	-4.47021791	0.00040246	0.00000781
Goodman test	-4.52307437	0.00039775	0.00000609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식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종속변수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장애 발생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016$ ,  $p = 0.000$ ). 이는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취업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Finch와 Robinson(2003), 조민수와 이상원(201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장애 발생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수용이 낮게 나타났다( $\beta = -0.003$ ,  $p = 0.000$ ). 이러한 결과는 장애 발생 시기가 이룰수록 장애수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간우선 등(2012), 김성희(2000), Woodrich와 Patterson(198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와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을 동시에 이항 로지스틱 회귀식에 투입한 후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이 종속변수인 취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의 효과가 매개변수를 투입하기 전의 결과에 비해 사라지거나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수용은 취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630$ ,  $p = 0.000$ ),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매개변수를 투입한 후( $\beta = -0.014$ )가 투입하기 전( $\beta = -0.016$ )보다 줄어들었고, 이러한 매개효과 유의성이 sobel test에 의해 검증되었으므로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 발생 시기는 매개효과 없이 순수하게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장애수용을 통한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취업할 확률은 낮아지고,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장애수용도 낮아지며, 장애수용이 낮을수록 취업할 확률은 낮아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통제변수로서 투입된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변수들이 유의하게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보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가 경증일수록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수록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차별 경험이 없을수록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가 아닐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취업 결정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류정진, 나운환, 2006; 이준상, 2008; 조민수, 이상원, 2011). 장애유형은 신체내부장애에 비해 신체외부장애와 감각장애가 취업 확률이 높지만, 정신장애는 유의한 결과를 갖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중학교, 고등학교가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 이선우(1997)와 오세란(2008)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일수록 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needs)를 반영하는 생애주기별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공단에서는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전환기 고등부 장애학생이나 만18~38세의 청년장애인을 주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중장년기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은 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에 비해 취업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년기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취업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낮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일수록 장애수용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애수용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극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들은 기존에 그들이 가졌던 자아의 이미지와 사회적 역할이 내적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장애로 인해 생긴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장년기에 장애를 겪게 된 장애인이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그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장애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족들도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가족으로서의 삶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비슷한 장애를 경험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다른 장애인 동료들과의 접촉을 통해 조언을 듣도록 하는 것도 장애수용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높아지면 취업 확률도 높아질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종국적으로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의 취업 확률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에 있는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인의 샘플사이즈(2,388명)가 큰 반면, 감각장애(시각장애 446명, 청각장애 451명, 언어장애 35명), 정신장애(318명), 신체내부장애(261명)의 샘플사이즈는 다소 작아서 장애유형별로 각각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 각각에 대한 보다 큰 샘플사이즈가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 장애유형별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 분석 해볼 것을 제안한다.

유승희는 벨기에 University of Leuven에서 Social Policy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와 '이민이며, 현재 장애인의 취업과 교육,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hyu398@hotmail.com)

## 참고문헌

- 간우선, 조성재, 조주현. (2012).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장애수용도와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1), pp.149-174.
- 공마리아, 장윤주. (2010).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17(3), pp.1-23.
- 김성희. (2000). 장애유형과 귀인양식에 따른 장애수용 및 우울반응. *장애와 고용*, 2000(12), pp.64-88.
- 김성희. (2010). 장애인의 취업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9(1), pp.137-167.
- 김희영, 조성재. (2009). 산재장애인의 장애수용도, 장애정도, 장애부위가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재활연구*, 19(1), pp.167-186.
- 박수경. (1999).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pp.171-193.
- 박수경, 곽지영. (2011). 산재장애인의 장애수용과 관련 요인. *재활복지*, 15(4), pp.261-281.
- 박수경, 안치민. (2006).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예측요인. *사회복지정책*, 26(12), pp.177-194.
- 류정진, 나운환. (2006). 장애인 취업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2), pp.167-193.
- 신은경. (2008). 지체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18(2), pp.159-183.
- 송진영. (2012). 임금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직무만족도 간 장애수용과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28(4), pp.329-346.
- 신승봉, 나운환, 정지훈. (2007). 청각장애 노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6(4), pp.271-288.
- 오소윤, 나운환, 박세진. (2014). 장애인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4(3), pp.129-147.
- 오세란. (2008). 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4, pp.255-275.
- 이선우. (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3, pp.287-313.
- 이익섭, 신은경, 이민규, 이범석. (2007). 척수 손상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장애

- 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 *장애와 고용*, 17(2), pp.31-53.
- 이준상. (2008).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8(2), pp.57-81.
- 조민수, 이상원. (2011).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논집*, 25(1), pp.57-83.
- 통계청. (2014). 2014 경제활동인구연보 대전: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수정, 최종철, 류정진, 김호진. (2012).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성남: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Asbury, C. A., Walker, S., Maholmes, V., Green, L. E. & Belgrave, F. (1994). Attitudinal and perceptual correlates of employment status among African America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60(2). pp.28-3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Case, A., Fertig, A., & Paxson, C. (2005). The lasting impact of childhood health and circumstance.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4, pp.365-389.
- Currie, J. (2009). Healthy, wealthy, and wise: socioeconomic status, poor health in childhood,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7(1), pp.87-122.
- Davies, P. S., Rupp, K., & Wittenburg D. (2009). A life-cycle perspective o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ong children receiving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payment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0, pp.133-151.
- Finch J., & Robinson, M. (2003). Aging and Late-Onset Disability: Addressing Workplace Accommoda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69(2), pp.38-42.
- Krause, J. S. & Crew, N. M. (1991). Chronologic age, time since injury, and time of measurement: Effect on adjustment after spinal cord injur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2(2), pp.91-100.
- Smith J. P. (2009). The impact of childhood health on adult labor market outcom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3), pp.478-489.

Tuttle, D. W., & Tuttle, N. R. (2004). *Self-esteem and adjusting with blindness: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life's demands*. (3rd ed.).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Woodrich, F., & Patterson, J. B. (1983). Variables related to acceptance of disability in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49(3), pp.26-30.

Wright, B. A. (1983). *Physical disability: A psychosocial approach*. (2nd ed.). New York: Harper & Row.

# The Effe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Being Mediated by Disability Acceptance

**Yu, Seunghee**  
(University of Seoul)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among workers with dis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medi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adopted the approach used by Baron & Kenny (1986) to estimate three different regression equations. The data used are from the 4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011). In the first equation, the dependent variable (employment) was regressed on the independent variable (disability onset); in the second, the mediator (disability acceptance)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in the third equation, employment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found that the later the onset of disability,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Also, later onset of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lower disability acceptance. After controlling disability onset, disability acceptance affected employment significantly. Also, the effe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was less in the 3rd equation than in the 1st equ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disability acceptance has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onset and employment. Overall, the results point to the need for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especially for people with late disability onset so that they can gain acceptance of their disability and increase the chance of their employment.

---

**Keywords:** Disability Onset, Disability Acceptance, Employment, Mediator